

어른을 보는 아이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 승 회**
노 혁
이 혜 연
맹 영 임

- I. 연구의 개요
- II.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의 근원에 대하여
- III. 아이들의 현실인식과 그들의 눈에 비친 어른의 모습
- IV. 아이들의 마음속에 비친 어른의 이미지
- V. 결 언

I.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관심은 어른들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도 젊은이들은 기존의 틀을 깨는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간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생각과 행동이 오늘날의 정치·사회적 환경에는 부적합하며 「허구성 짙은 권위주의」에만 의

존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성세대는 신세대의 「급진적이고 철없는 이상주의」를 경계하고 불안해하며 그들을 설득하려 든다. 어렵고 힘들게 고등학교를 졸업시켜 대학에 보낸 자녀가 어느덧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젊은이가 되어 버렸을 때 부모들이 느끼는 절망감, 배신감은 엄청난 것이다.

이러한 어른과 아이 즉 신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고려대의 임희섭 교수는 신세대와 부모와의 갈등은 반드시 민주화라는 명분에 얽힌 이념적 갈등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식의 안위와 가족의 피해를 걱정하는 부모입장이 자식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연세대의 송복 교수는 농경사회의 전통속에서 성장한 기성세대와 다원화되고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사회

*이 논문은 본원의 1991년도 연구사업인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국민참여 방안연구의 일환인 '어른을 보는 아이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를 요약한 것임.

**공동연구자는 한국청소년연구원의 한 승회(책임연구원), 노혁(연구원), 이혜연(연구원), 맹영임(연구원)임.

에서 성장한 신세대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세대는 극단적 부류이든 온건한 부류이든 기성세대보다 투쟁적·열정적·행동적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고집하는 가치규범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심리가 강하다」고 갈등의 일차적 원인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의 관심은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지 않다. 우선 아이들의 어른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는 데에 있다.

아이들의 어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아이 VS 어른」간의 이분법적인 관계에서가 아닌 「아이×어른」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상황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심의 초점을 두려한다.

이는 「총체적인 관점」이라는 인간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원인-결과」의 패러다임이 아닌 상황 *context*, 특이성 *idiosyncracies*, 복합성 *complexities*,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ies*에 주안점을 두어 일반화된 「사실」보다 「의미」를 추구하려는데 더큰 비중을 두는 특징을 갖는다. 예컨대, 기존의 실증주의적 접근이 탐구의 대상으로부터 연역이나 귀납을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이 총체적 접근은 「주체-객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려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총체적 관점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상황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청소년이란 개념을 「젊은이», 「10대», 「신세대», 「아이들」과 같이 여

러 용어로 애매하게 쓰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청소년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국민학교 시기의 어린이부터 20대 후반의 청년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와 같이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에서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그 조사의 대상이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점에서 시간적으로는 6년간의 간격속에 포함되는 아이들이라 하겠으나 특히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는 사고와 정서의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어른(특히 부모)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성인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당연히 성인들의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상황에 따라 그들은 어른들을 부정적으로도 또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부모를 좋아하면서도 부모가 일방적인 권위적인 모습을 보일때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며, 어른들이 보이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분개하다가도 어느 때는 세대차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른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 「어른들이 보이는 말과 행동이 불일치»,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려는 권위주의적 태도»,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간의 인식의 차이」 이것들이 아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것인지에 특히 관심의 초점을 두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른과 아이들 간의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둘째, 아이들의 현실인식과 그들의 눈에 비친 어른의 모습은 무엇인가?

셋째, 아이들의 마음속에 반영된 어른의 상 *image*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제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어른과 아이의 갈등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논의해 보고 III장과 제 IV장에서는 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영역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현실인식과 그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조사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서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청소년과 어른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기본적 인식론의 문제로서, 어른과 아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른과 아이의 이분법적 관계를 가정하는 「원인-결과」패러다임의 오류를 인식하여 「부모×자녀」 또는 「어른×아이」들간의 상호작용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는 총체적 접근을 상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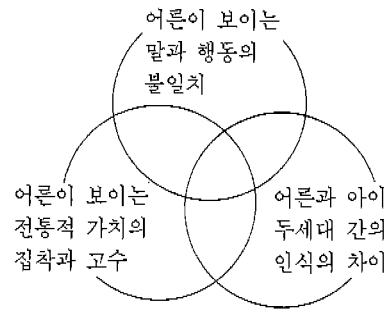
본 연구가 갖는 기본적 상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모와 아이들간의 관계는 총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총체적 관점이란 인간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원인-결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황, 독특성, 복잡성, 상호의존성 등에 탐구의 주안점을 두는 입장으로 탐구에서 일반화된 「사실」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보다 관심을 둔다. 예컨대, 실증주의적 관

점은 탐구의 대상으로부터 연역이나 귀납을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비해 이 총체적 접근은 「주체-객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경험의 의미는 상황이나 맥락에 독특한 것으로 그것을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른과 아이들의 갈등은 어른들이 보이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 「전통적 가치의 집착과 고수」, 그리고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가 주요 갈등의 원천이다.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의 개념모형

○조사도구 제작의 근거는 어른과 아이간의 상호작용적 관계의 관점과 어른과 아이들간의 등의 개념모형이었다.

;질문지는 위에서 추출된 3개 영역에 따라 본 연구진에 의해 설문문항이 작성되었다.

설문은 세 영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예컨대, 아이들에게 갈등 상황을 제시하여 그 반응을 선택케 한다든지, 세대간의 인식의 비교를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인식조사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등이다.

○조사 대상을 위한 표집은 할당표집 *Quota sampling*이다.

〈표 II-1〉 응답자의 학교급별·지역별 분포
(단위:명(%))

학교급 지역	중		고		합 계 (%)
	남	여	남	여	
서울	87	95	99	102	383(24.4)
강원/춘천	52			55	107(6.8)
충남/대전	49	45	49	48	191(12.2)
충북/청주		54	55		109(6.9)
전남/광주	45	51	39	49	184(11.7)
전북/전주	45			55	100(6.4)
경남/부산	44	97	98	49	288(18.4)
경북/대구	52	53	51	51	207(13.2)
계 (%)	374 (23.8)	395 (25.2)	391 (24.9)	409 (26.1)	1569 (100.0)

〈표 II-2〉 응답자의 성별·학교급별 분포
(단위:명(%))

성 별 학 교	남	여	계
중 학 교	374(23.8)	395(25.2)	769(49.0)
고등학교	391(24.9)	409(26.1)	800(51.0)
계	765(48.8)	804(51.2)	1569(100.0)

〈표 II-3〉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명(%))

지 역	서울	직할시	기타시	계
비 율	383(24.4)	870(55.5)	316(20.1)	1569(100.0)

〈표 II-4〉 응답자의 개인배경-부모의 연령
(단위:명(%))

연 령	부	모
30대	39(2.5)	283(18.0)
40대	978(62.3)	1070(68.2)
50대	440(28.0)	193(12.3)
60대이상	33(2.1)	12(0.8)

〈표 II-5〉 응답자의 개인배경-부모의 학력
(단위:명(%))

학 력	부	모
무 학	11(0.7)	32(2.0)
국 졸	148(9.4)	317(20.2)
고 졸	284(18.1)	451(38.7)
대 졸	653(41.6)	597(38.0)
대졸이상	83(5.3)	11(0.7)

〈표 II-6〉 응답자의 개인배경-부모의 직업
(단위:명(%))

직 업	부	모
무 직	42(2.7)	871(55.5)
일용근로자	118(7.5)	80(5.1)
근 로 자	227(14.5)	98(6.2)
농림어업자	125(8.0)	112(7.1)
자 영 업	399(25.4)	283(18.0)
사 무 직	469(29.9)	94(6.0)
관 리 직	63(4.0)	7(0.4)
전 문 직	48(3.1)	13(0.8)

〈표 II-7〉 응답자의 개인배경-가족의 월평균 소득
(단위:명(%))

소 득	비 율	소 득	비 율
30만원미만	43(2.7)	90~110만원	338(21.5)
30~50만원	139(8.9)	110~130만원	180(11.5)
50~70만원	229(14.6)	130~150만원	140(8.9)
70~90만원	255(16.2)	150만원이상	243(15.5)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으로 구분하여 남중, 여중, 남고, 여고의 네 전집의 비율에 따라 한 학급씩 단순 무선 표집방식으로 1,600명을 표집하였으나 분석된 사례수는 1,569명이었다.

조사의 결과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분석의 주요 변인은 응답자의 성별, 학교급별, 지역별 그리고 응답자의 가정배경 변인인 부모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가정의 소득수준 등이었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한 주요 통계적 방법은 Frequenciss, χ^2 test였다.

II.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의 근원에 대하여

어른의 안경과 아이들의 안경의 차이가 바로 세대차이며, 이것이 두 세대간의 갈등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요인들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그것들을 찾아야 하는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춘기 이후에 오는 소위 제2반향기로부터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은 티 없는 완전무결성과 이상을 추구한다. 이에 대한 추구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그들은 흔히 이 마약에 도취된다. 이와같은 청소년기의 사고는 당연히 기성세대의 현실위주의 가치관과 충돌을 빚게 마련이다.

발달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의 입장이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을 상당히 타당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나,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독립적이며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그 갈등을 정태적으로 설명한다는 약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른과 아이간의 갈등을 「어른 VS 아이」의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닌 「어른×아이」의 상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을 전제하였다. 이는 총체적인 입장으로서는 인간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인-결과」의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녀가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상황에 초

점을 두고 일반화된 법칙이나 사실 보다는 「의미」를 찾아내려는데 더 큰 비중을 둘을 말한다.

본 연구는 부모와 아이들간의 갈등의 원천을 부모와 아이들의 일상적인 상호관계의 맥락에서 찾으려 한다. 이는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이 본질적으로 상황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예컨대, 아이들은 어른들을 상황에 따라 부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도 본다는 것이다. 부모가 보이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분개하다가 또 다른 상황에서는 이해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세 맥락—어른이 보이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 어른이 보이는 「전통적 가치의 집착과 고수」, 그리고 어른과 아이 두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에서 갈등이 대체로 야기된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말과 행동의 불일치

“이렇게 온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야 빨리 죽어야 나도 편하고 자식들 걱정거리도 하나 줄 어들텐데...내가 짐이 되서야” 임버러처럼 말하는 병든 노인이 그래도 좋다는 보약은 다 챙기며 삶의 끈질긴 욕망을 나타낸다.

얼마전 신문의 해외 토픽에 실린 기사 한 토막, “자살권 옹호단체의 창립자인 험프리어사가 한 별관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인근 별장에서 찔막한 유서를 찾았다고 발표” (동아일보, 1991. 10. 11)

위의 두 가지 정황은 말과 행동에 관하여 재미있는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앞의 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고 뒤의 사례는 말 즉 자신의 신념이 실천으로 옮겨진 일관된 삶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은 비

약하는 면이 있지만 이런 극적인 예를 든 이유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결코 보편적으로 나쁜 또는 신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말과 행동의 일관성에 관한 논제를 풀어나가려는 의도에서 이다.

흔히 말과 행동의 불일치의 문제는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자기주장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 등 보다 다양한 그리고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인간형 구분의 상징적 척도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 믿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으로 이로운 사람인가?

다시 앞의 예문을 생각해 보자. 앞에 제시된 노인의 예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능적 사고와 행위를 감지할 수 있다. 노인의 말, 즉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말은 삶에 대한 강한 본능적 집착이라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뒤의 예는 그 여자의 신념이 곧 행동으로 옮겨졌지만 해외토박에 날만큼 기이한 아니 적어도 이상한 행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것은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궁극적인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논리는 어떤 점에서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사회속에서 상황이 다른 사람과 부딪치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변수 때문에 제한된 이론에 불과하다. 이 점은 마르틴 부버가 쓴 글에서도 상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입으로 하는 말은 먼저 사람의 머릿속에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게 되지만 그러나 이 두가지는 모두 참된 사건의 굴절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말이 사람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가운데 서 있으며 그말로부터 말을 하는 것이다」(마르틴 부버, p.23)

또한 행동의 관점에서도 말과의 일관성 관계의 예를 들 수 있다. 만일 어떤 코메디언이 극중에서 예견된 행위—물론 시청자들이 미리 예측가능한 코메디는 가능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을 미리 설명하고 코메디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코메디의 요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예로 우리는 장난을 한다. 짓궂은 장난꾼에 의해 튼튼한 의자에 앉는다고 믿고 앉았다가 의자를 빼는 바람에 나자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이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생활의 다양한 현상으로 표출되어지는 하나의 개인적 또는 인위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사회와의 관계(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령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과 행동은 늘 똑같을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만일 말과 행동이 항상 똑같다면 세상은 보다 투명해질지 모르지만 인류의 발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억지로 비유한다면 동물들의 생활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 또는 다중인격자, 못믿을 사람, 위선자 등으로 낙인을 찍는다. 이러한 상황은 현실에서 특히 못가진 자와 잘가진 자 등의 사회·경제 계층간 한가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는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은 바람 풍하면서도 우리보고는 바람 풍하라고」한다는 조소섞인 비난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생각은 아이들이 아직 현실과 많은 또한 치열한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 당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철없는 소리라고 외면해 버린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에 관한 여러 측면 중 어른들과 아이들의 갈등의 원천이 되는 면에 대한 논의로 말과 행동이 가지고 있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시각을 고찰해 보자.

말과 행동 : 자연스러운 불일치와 인위적인 불일치

모든 말 뒤에 꼭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면 사람의 사변작용은 큰 제약을 받게 되며 그러한 세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인지하는 사실이다.

배고파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미워죽겠다. 사랑스러워서 미치겠다.

위의 문장들은 얼핏 보면 부사와 동사 사이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로 표현된 듯하지만 사실은 앞의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행동형태의 서술어가 쓰여진 예이다.

이렇듯 말과 행동은 그 관계의 특수성을 설정하기 전에 즉 행동을 암시하는 말이 즉각적으로 표현되기 전에는 한 인간의 가치 또는 주체적 특성을 갖고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인간 이외의 동물은 자기자신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방법을 모르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뚜렷한 인간적 자각 위에 섰던 것이며, 따라서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로 인간은 참다운 의미로서의 주체적인 인간이 된 셈이다. 주체성이란 요컨대 객체에 대한 인간 태도의 자주성의 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자연적으로 주어진 본능에 따라 자연계에 맹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연적 인생을 이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동물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외계에 작용하는 자기의 능력을 알고 그것에 입각해서 가능하고 효과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는 단계에까지 우리들의 선조들이 진보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기술과 결부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자각은 주체성 성립의 중요한 내면적 요소이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어떤 목적에 따라서 변경하고 동시에 또 그 의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환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환경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기의 지위와 존재양식에 대한 자기 인식도 가져야 한다. (플빛편, pp. 171-172)

따라서 말과 행동의 불일치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을 불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발전의 기초적 토대이고 원동력이다. 어떤 행동은 대상을 향한 의지 또는 욕구의 표현이지만 말은 자신을 향한 주체적 정신작용의 범위에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말과 행동의 원론적인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인위적인 불일치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모순과 특성 중에는 바로 자연스러움과 인위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능력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때로는 자기자신도 속이는 경우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내면적 가치로 고집하는 사람을 통해 왜곡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른 면에서 앞서 언급한 바대로 행동은 인

간의 겉과 속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일상의 교체나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이같은 겉과 속, 즉 공적 얼굴과 사적 얼굴을 잘 배려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조종해 나간다. 이를테면 만나기 싫은 사람을 오랫동안 길가다 만났다 하자, 속으로 재수없게 만났다. 빨리 가버리라고 속 얼굴은 찡그리면서 겉으로는 「반갑다. 다음에는 꼭 한 잔 하자」고 겉 얼굴은 웃는다. (이규태, p.263) 이렇듯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인간관계에 선의로 쓰일 수 있고 때로는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더럽고 징그러운 녀석은 처음 봤다. 내일부터는 씻든지 말든지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다음날 물을 따뜻하게 데워 열심히 씻겨준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인 불일치가 확고한 가치나 신념이 되어 타인의 생활과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로 부터 발전한 인위적인 불일치가 나타날 때 많은 혼란이 일어난다. 또한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명확히 보편화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의 말과 행동의 차이는 말에 비해 그 행동을 자주 볼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가 무척 어렵다.

인조반정 당시의 공신인 김유 대감 마님의 생신날에 상류 고관 부인들이 빠짐없이 모였다. 당시 북변에서 날로 강해져 가는 호족이 미구에 우리나라를 침범하리라는 전운이 감돌래라 이 상류 사회의 마님들은 이 호족이 쳐들어 왔을 때 자기네들은 어떻게 처신하겠다는 것이 화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예외 없이 비수를 품고 다니다가 자결하겠느니, 투신하겠느니들 말했다. 의당 그러해야할 당위요, 명분을 말한 것이다. 그중 김모 승지 부인만이 당

해 봐야 알겠다고 용기있게 본심을 말한 것이다. 모두들 김 승지 부인을 빈축했고, 그중 이모 참판 부인은 「되놈에게 몸을 팔 년」이라고 까지 막말을 했다. 대감마님들이 예상했던 대로 임금이 피난하גיע도 초급했을 만큼 호군이 서울을 점령, 남한산성으로 피난가던 일단의 대감 마님들이 삼전도 나무를 건너자 마자 호군에게 잡힌 몸이 되었다. 그 가운데는 당해 봐야 알겠다면 김 승지 부인도 또 중론을 대변하여 「되놈에게 몸을 팔년」이라고 막말을 했던 이 참판 부인도 있었다. 한데 이상하게도 끝까지 수절하여 성난 호장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운 채 송파진 터 벌에 널려온 것은 당해 봐야 알겠다면 김승지 부인뿐이요, 자결하고 투신하겠다면 마님들은 강물이 바로 곁에 있는데도 어느 한 마님도 실천하지 않았고, 특히 되놈에게 몸을 팔 년이라고 막말을 했던 이 참판 부인은 호장의 애첩이 되어 전후 청나라까지 따라가 살았던 것이다. (이규태, pp.263-264)

위의 사례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관한 극명한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김모 승지 부인을 욕한 이모 참판 부인이 더 현실에 적응을 잘한 사람이다. 또한 누가 더 옳은 행동을 하였는지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말로 확인하는 인간도리의 당위가 행동으로 일치되지 않았을 때 받는 상처는 김모 승지부인이 행한 현실에서의 가변성을 뒤집는 행동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기의 불완전한 확신에 가득찬 이모 참판부인의 말은 그의 행동이 현실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그 말 때문에 더 한층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다.

한편 이와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이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인간

의 윤리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윤리를 지켜가야 할 이유는 결국 사람들 자신의 이익, 그들 자신의 최대 만족에 있다는 것이다. 남들의 관점, 사회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도 남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이문, p. 91)

결국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주위의 상황 속에서 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남들로부터 존경심을 받기 위한 인위적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많은 혼란이 온다.

특히 어른들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른들의 도움을 교육적인 학습모델로 볼 때—또한 어른들은 그것을 강조하기도 한다—아이들에게 비춰지는 어른들의 인위적인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아이들의 성장 및 사고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커다란 갈등요소가 된다. 더욱이 경제·사회적 급속한 발전에 따른 엄청난 변화 가운데서 오는 유리적 가치관의 소용돌이는 이러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사회의 변화된 사회분위기의 특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적어도 애브라함 매슬로의 동기이론¹⁾을 근간으로 대입한 사회현상 설명에 동조한다면 지금의 우리사회는 성적 욕구가 분출되고 자리잡아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과 당위간의 괴리가 가장 심한—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와 이렇게 해야한다는 등 성에 관해서는 무척 엄격하고 통제되어 있는 반면 성이 갖는 특성은 인간의 욕망을 가장 많이 자극하고 현실화시키려는 면이 강하다—성의 문제에서 어른과 아이들

과의 갈등은 심하다. 이와함께 물질만능주의의 사회풍토 등은 정신적인 면에 숭고성을 강조하는 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심각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이 갖는 느낌과 태도는 어떤가를 알아본다.

어른들의 말

「요새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어른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 온 불만과 질타라면, 「어른들은 믿을 수 없다」, 「어른들은 거짓말만 하는 위선자들이다」라는 말은 아이들이 어른들에 대한 반항의 이유였다. 이에 대해 어른들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도 커보면 안다.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어 사니? 나도 거짓말한다는 이야기 안듣고 양심의 가책 안받고 살고 싶다. 다 먹고 살라면 별 수 있나 너희도 어른이 되어 봐라」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책임을 져야할 더 많은 말을 하고 산다. 이것은 어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세대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수많은 사회현실과 부딪치며 살아간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속에서 그들은 아이들의 중심이 된다.

가정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은 가장 많이 만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그들은 커다란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들은 다른 사회관계에서 보다도 가정에서 훨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다른 아이들이 담배를 피워도 우리 아이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건 말도 안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웠는데, 세

상에 담배라니요. 그것은 불량한 학생들이나 피우는 것이지요」

상담을 해 온 어느 피상담자의 하소연에서 가정에서의 어른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본다. 똑같은 아이라도 나의 아이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안된다. 그러나 다른 아이의 문제는 그들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어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관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의 테두리가 가장 편안한 장소이고 고유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그 일관성은 자연스러운 가운데 의식적으로 계속된다. 또한 많은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문제가 있더라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물론 가정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쉽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자신의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이들의 의식은 가치로 내재화되어 자신도 모르게 어른들에 대해 불신하는 갈등의 근원이 되기 쉽다.

따라서 가정에서 어른들의 말과 행동의 자연스러운 불일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현실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에서 어른들은 가장 윤리적이고 당위적인 말을 많이 한다.

「지도층의 비리는 척결되어야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소비를 하는가? 어떻게 자기 자식같은 아이들이 접대하는 술집에서 회회낙 낙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가?」

이러한 옳고 바람직한 말들의 향연은 곧 현실속에서 술그머니 객관화되어 버린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 술집도 골라다니며 마셔야 하나 가다 보면 아이들이 있

는 술집도 갈 수 있고 나만 올바르게 행동하면 그만 아니야? 가끔 가다가 친구들과하고 내가 골프 좀 쳤기로서니 그렇게 방송에서 대도할 수 있어? 그래 그 친구는 이번에 도와주어야지 그래도 우리학교 동문 중에서는 똑똑한놈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시켜야 해 그래야 우리도 좋지 뭐」

이것은 앞서 말한 바대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다른 사람은 인위적인 태도나 생각에서 나오고 자신은 스스로의 자연스러운 생활현상에서 비롯된다는 지나친 자기 합리화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든 그렇지 않든 간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른들이 어떤 부문에서 더욱 불일치를 야기시키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변화하는 사회의 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과거 생존자체, 즉 잘사는 일 자체에 우선적 가치를 둘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일, 더욱 재미있게 사는 일에 관심을 옮겨온 우리사회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왜곡되어 금전과 권력의 강한 욕구와 쾌락의 추구 등이 사회적 가치 중에서 우선이 되는 비뚤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어른들의 행태와 말과 행동의 불일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되고 있다.

아이들의 행동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따라서 움직인다. 아이들도 말과 행동이 늘 같지는 않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해 놓고 하지 않고, 친구집에 놀러간다고 하면서도 만화가게로 향하기도 한다. 어쩌면 그들은 행동을 하기 위하여 말을 한다. 자신의 행동을 뒷받침하기 위

해 말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적어도 그들은 어른들처럼 말과 행동의 차이 또는 괴리를 합리화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말과 행동의 차이를 느끼면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심히 느껴 괴로워한다.

아이들은 이상적으로 살고 싶어 한다. 말과 행동이 똑같이 살고 싶어한다. 자기의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싶어한다. 이와같은 것은 때로는 기성세대에 대한 강렬한 반항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자신의 주체성을 통해 상대에게 존경과 실익 등 그 무엇을 얻으려는 욕망의 발로는 아니다. 그 불일치는 자신의 관심과 생각을 펼치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논리는 아니다.

「어른들은 묘한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리지만 이해합니다. 살다보면 거짓말 할 때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할 때도 있다는 것ですよ.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른들은 자신이 해놓고도 마치 남이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끄러워서겠지만 그런데 더힘들지 않을까요? 점점 삶이 꼬이지 않을까요?」

길거리에 앉아있는 걸인을 보고 인상을 찡그리며 지나치는 모든 사람에게 자애로운척 하는 목사인 아버지를 우연히 본 아들의 냉소적인 말이다.

아이들의 세계가 어른들에 비해 즉흥적이고 감성적이며 단순한 것처럼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것이 일치하든 그렇지 않든 단선적이다. 아이들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조하면서도 자신들이 그렇지 못한 것은 아직 아이라는 사회적 한계(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

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자신들만 살 수 있는 세계라면 서로를 속이지 않고 배운대로 실행하며 인간다운 윤리를 지키며 살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싶어하고 어른들의 행동을 기대한다. 자신이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어른이 되어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면서도 윤리와 도덕의 당위성을 갖고 그대로 행동하는 어른, 물질보다는 인간과의 정을 소중히 하는 어른을 바란다. 그래서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그대로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젊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된다.

앞서 살펴 본 바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많은 부분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이며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모두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 즉 자신들에게 강조한 윤리적,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에 비해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점에 실망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단순히 늘 제기되는 당연한 문제일까?

아이들은 이야기한다. 사람이 어떤 방식 또는 신념으로 행동을 하며 살아가며 이상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 동의하는 절대가치의 이상이 실현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요새 어른들의 불일치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명제에 대한 괴로움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가치간의 어쩔 수 없는 괴리가 아니다. 삶의 표피적인, 육감적인 현상에 대한 선택과 집착에서 나온 황폐화된 그야말로 가치없는 모습이다.

「모두 가난한 마음으로 조금씩 남을 이해하며 살자고 외치면서도 왜곡된 자기확신으로 소

비의 화신이 된 어른, 손녀뻘 되는 여자를 끼고 빨간 눈으로 대낮 거리를 활보하며 남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

이들의 삶이 과연 어떤 가치나 고민속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일까?

어른들과 아이들 사이의 차이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오늘날 아이들은 어른들과 자신의 차이를 느끼기 이전에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불일치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꾀에서 나오는 지극히 인위적인 불일치를 자연스러운 불일치로 속이며 나아가 엉뚱한 일관성으로 강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결국 말과 행동의 일관성은 너무나 광범위한 인간관계의 틀속에서 나오는 현상이며 그것의 불일치가 기본적 신뢰나 바람직한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목표에 손상을 주지는 않지만 어른들과 아이들과 관계에 있어서 불일치를 당연시하며 현실에 대한 개선보다는 윤리적인 삶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편하고 단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어른들에 대한 불만은 아이들과 어른들간의 또 다른 인식차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 전통적 가치의 집착과 고수

예전엔 산에서 나는 수많은 약초들의 효능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화학적 실험으로 성분을 분석할 수 없었던 시대엔 오직 사람과 동물들의 체험이나 간접경험을 통한 시행착오를 거쳐 그 효능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통신수단이나 출판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까지 많은 희생

이 뒤따랐을 것이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병원보다는 민간요법으로 행하는 치료에 더 신뢰를 가진적이 있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모든 약초들의 성분을 자세히 분석하여 그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인체에 유용한 성분만을 빼내 간편한 약으로서 만들 수도 있게 되었다.

우리 선대들은 약초의 효능을 알 수 있게끔 도와준 선조의 전통과 경험을 소중히 생각해왔다. 그것이 곧 그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은 이와같은 전통을 단지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증해주는 역사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들은 전통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시 하지도 않는다.

이와같은 상황을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의 전통과 관련시키기는 쉽지 않다. 전통이란 전해져 오는 것이라는 문자의 뜻보다는 현재의 생활에 비추어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기초로 파악된 문화유산을 말한다. 우리는 흔히 전통이란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모든 관행, 관습, 인습을 총괄해서 말하고 있다. 전통이란 말 자체는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물론 어른들이 그 주체가 되겠지만-들이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여 합의한 공동체의 신념체계가기 때문에 그들의 그 소중성이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다른 면에서 전통은 그 시대의 역사성과 공동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연대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 시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전통이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삶의 연속성을 이

어주는 주요한 수단인 동시에 목적까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른들과 청소년들간의 해석과 평가는 매우 다르게 보인다.

앞서 언급한 약초의 예와 같이 전통은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통의 학술적 논리와 의미에 따르면 약초의 효능을 민간요법의 경험으로 분석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비합리적이며 이미 전통을 계승하는, 즉 경험의 축적을 뜻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약초를 현대의 과학으로 분석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다른 형태의 전통을 확립하는 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른들은 전통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한가?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전통은 기성세대 또는 구세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의 결실이요, 터전 즉 자신들이 성취해 놓은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부적 기운을 잃으신 것 같다. 매일 시름시름 앓으시는 것 같다. 마음의 병인가 보다 나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시던 낡은 중절모와 요강을 버리고 난 후부터 그러시는 것 같다. 할머니는 내심 섭섭하신 눈치를 감추시면서 그것들에 대한 어머니의 무용론과 위생론에 고개를 숙이셨다.」

어느 여대생의 ‘할머니와 요강’이라는 글 중에서 우리는 기성세대의 지난 것에 대한 집착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전통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시비 이전에 기성세대가 전통 아니 정확히 지나간 과거를 미화시키며 집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나온 삶에 대한 애착이며 새로운 사실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다. 아이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어른들은 매우 소심하다. 처량하기도 하다. 위험스러운 일은 전혀

하지 않으려 한다. 도대체 모험심이 없다. 심리적으로 보면 어른들은 자신의 삶의 폭이 좁아지는데 따른 두려움을 앞서 태어났다는 현상—이 개념에는 강한 권위의식이 내포되어 있다—으로 멀쳐내려는 강한 투사현상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물론 사회적 역할을 떳떳이 감당하고 있을 때는 가능하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위의 할머니처럼 자신의 과거에 대한 미련을 자기에 대한 자책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과연 지금 현재 어느 것이 우리 시대에 맞는 전통유산인가라는 논의는 불필요하다. 문제는 왜 어른들은 전통적 가치에 집착하고 고수하며, 그와는 달리 아이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불필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올바른 전통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찾아감으로써 어른과 아이들사이의 괴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상론이며 논의의 초점은 아니다.

이렇듯 전통에 대한 의미와 시각을 앞서 이야기한 것은 전통은 곧 권위의식을 수반한다는 자연스러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이다. 전통은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어른들은 권위를 갖고 싶어한다. 또한 그들은 적절히 그 권위를 활용함으로써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된다고 믿는다.

더욱이 오랜 문화유산과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권위는 동양적인 사고체계가 가중되어 그 어휘는 절대적 힘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과학발달 이전의 농경사회 그리고 유교문화가 사회사상 전반에 흐르고 있었던 시대엔 권위의 힘에 대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권위는 그 내용에 있어 많이 변하고 있다.

이같은 권위는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많은 갈등요인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권위자체에 대한 시각차이라기 보다는 권위를 시대나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상이함을 의미한다. 사실 이 차이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전전한 사회 갈등이 될 수 있으며 사회가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가진 활발한 모습을 보이게도 하지만, 문제는 갈등의 심화로 인해 바람직한 권위자체가 상실될 때의 일이다. 또한 이것은 자칫 전통을 부정하는 엄청난 과오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어른과 아이들과의 시각차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비록 각기 상황 때문에 쉽게 좁혀지지 않더라도 더 큰 위험을 막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어른들은 왜 전통적 가치에 따른 권위에 집착하며 고수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아이들의 눈에는 어떤 형태로 비추어지는가?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가를 살펴봄으로써 권위에 따른 인식차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권위와 권위의식

일반적으로 윗사람의 지위에 있는 기성세대(부모, 연장자, 직장의 상사)는 젊은 세대가 「견방지고 버릇이 없으며 예절을 지킬 줄 모른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아랫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으며 권위를 내세워 무조건 복종만을 요구한다」고 불만스러워한다.

이같은 갈등은 우선 권위주의적 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 즉 아랫사람의 '정당

한' 권리에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그릇된' 권위주의와 자신의 공적인 지위에 부여된 '정당한' 권위를 인격적이고 사사로운 관계에 까지 연장해서 행사하려는 '정당하지 못한' 권위주의 요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문화전통과 사회발전, p.226)

사실 권위는 제도, 이념, 인격, 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는 능력 또는 위력이다. 권위는 상대적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의 힘으로 자연적으로 성립되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권위는 그 행위형태로서 권력을 동반한다. 즉 권력이 정당성을 승인할 때 비로소 권위가 된다. 이것은 권위주의와는 다른 말이다. 외재적인 권위에 대하여 자기비하와 복종하는 태도 및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권위주의이다.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에 입각하여 사물을 인정, 평가등을 하는데 있어 감정적, 정서적 일정한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권위주의 또는 권위주의적 사고는 힘에의 맹신, 일체화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반이성적 반근대적 내용을 가진다. 요약하면 그 사전적 의미보다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권위적 사고 즉 감성적인 권위가 사회 속에서 존재할 때의 갈등이다.

보편적으로 감정적인 요소의 권위는 어른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것은 사회변화에 적응하려는 힘에 앞서 이전 사회적 체제와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려는 생각과 자신의 선행 경험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경우이다.

기업간의 제품판매경로를 협상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A 회사의 사장과 B 회사의 회장 즉 실질 경영주끼리 만나서 서로의 이해관

계를 털어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에 따라 회합이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서 젊은 A 회사의 사장논리가 그 협상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 B 회사는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B 회사의 회장이 불리하게 되자 갑자기 호통을 치면서 A 회사의 사장에게 「자네 선친과 나는 둘도 없는 친구사이였네 자네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나에게 그럴 수 있는가」

이 한마디에 A 회사의 사장은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B 회사의 회장밑에 승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듯 어른들의 권위의식은 논리 또는 합리성의 부족으로 인한 우격다짐에서 나오기도 한다. 이것은 권위와는 전혀 다른 말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학술적인 용어로 쓰는 경우외에는 권위와 권위주의라는 말을 따로이 구분하여 활용하지 않는다.

막스웨버는 권위를 카리스마적 권위, 전통적 권위, 합법적 권위의 세가지로 구분한다.

그가 말한 권위를 구분한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본 논의에 적용하면 카리스마적 권위는 역사성과 사건 또는 신의 은총 등으로 부여받는 하나의 특수한 능력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위는 아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전통적 권위와 합법적 권위가 통용되는 실정이다. 전통적 권위는 기득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시말해 기성세대라는 기득권과 그들의 합법화된 권리의 혼합물이다. 이것은 관습이나 법률에 의해 행사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분에 의해 사용된다. 반면에 합법적인 권위는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고 어떤 직무나 직책에 따라 적법한 권위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보면 소위 기성세대 즉 어른들이 내세우는 일반적인 권위의식은 전통적 권위의 성향이 강한 반면 아이들은 합법적 권위만을 인정하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이같은 갈등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미 사회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합법적 권위로서만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면 아무런 사회의 위계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한편, 아이들은 어른들이 떳떳하다면 합법적 권위로서만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자신들을 교육시키는데 충분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권위에 대한 해석과 함께 권위가 행사되어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 심리학적인 용어이지만 권위에 따른 행동에 의한 제한된 범위를 수용권 *zone of acceptance*이라 한다. Herbert Simon, p. 12

만일 권위있는 사람이나 직위가 수용권을 벗어나서 권위의 행사를 시도한다면 불복종할 확률이 많다. 예를 들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전문적 권위를 필요로 하며 이 권위는 환자의 행동에 통제를 가한다. 즉 여성 환자의 경우 남자 의사앞에서 쉽게 옷을 벗는다. 이것은 환자의 수용권의 한계밖에 있는 성적 관계를 목적으로 해서는 전자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은 합법적일 수 있으나 학생의 사적인 일, 똥똥한 학생에게 똥무개가 많이 나가니 조금 먹으라고 명령한다면 이것은 수용권 밖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어른들의 전통적 권위의 집착은 거의 심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전통적 권위

를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즉 수용권을 벗어난 어른들의 형태를 계속적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위와 권위의식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른과 아이들은 권위를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어른과 아이들간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자와 권위에 의해 눌림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해 버린다. 그들은 아이들 간에 일어나는 권위의식을 간과하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도 자신들의 세계에서 권위의식의 만연을 도외시하거나 크게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 권위 대 합법적 권위

아이들은 어른들은 전통적 권위에 집착이 강하고 자신들은 합법적 권위의 위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아이들은 산업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서구문화의 영향 그리고 급속히 이루어지는 정보전달의 영향으로 어른들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사고체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교육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거의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해온 권위가 그 능력을 상실당하고 있다. 요사이의 유치원 어린이에게조차 「몰라도 돼,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어린아이의 경우 자신의 옷은 자신이 선택한 것만을 고집한다. 엄마가 골라주는 대로 입던 옛날 어른들의 어린시절과는 다르다. 일일이 그 수준에서 납득이 가고 수긍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꺼이 부모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야 한다. 더 이상 수직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부모 자녀 사이에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가부장적 제도아래에서 과거의 며느리들은 귀머거리 삼년, 병어리 삼년의 부덕을 요구당하며 남성위주의 권위주의의

회생양이 되었었다. 나는 어린 시누이가 손위 올케로부터 식사준비부터 설것이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손하나 까딱않고 식사 시중을 받았으며 직장에 다니는 부인을 둔 남편도 가사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등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시달리며 생활해왔다. 이같은 권위의식이 통용되었던 이유중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가 권위에 굴복하고 있다는 의식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권위에 의지함으로써 안정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은 그러한 권위주의의 의지를 점차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이제 맹목적인 복종은 아이들에게 미덕이 될 수 없다. 가족 내에서도 가사분담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전통적 가치나 윤리에 따른 권위의 무조건적 복종의 요구는 결국 가족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아버지는 나에게 치마를 입고 다니라고 하신다. 그 이유는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타당한 말이 아니다. 물론 치마를 입는 모습이 바지를 입었을 때보다 더 여성스럽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바지가 편할 때도 있고 더 멋있을 경우도 있다.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닌가? 도저히 아버지의 이야기는 수긍할 수 없다. 그냥 욕박지르면 된다고 믿으시는 아버지가 어느 때는 가엾기까지 하다.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할 수 없이 학교에 와서 바지로 갈아입고 다닐 때가 많다. 아버지는 내가 바지를 입으면 무척 나쁜 아이가 되는 줄 아시는 듯이 기겁을 하신다.」

그렇다고 아이들은 늘 합법적 권위만을 갖고 그들의 세계속에서 생활하는 것만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권위를 가장 배척하는 아이들에게

조차 권위의식 성향이 강하게 젖어 있음을 본다.

서울대 사범대 교육연구소의 조사연구를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우익, 보수적 권위주의 체제에 수용적인 성격증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높은 정도의 권위주의적 복종과 강인성 지향적인 증후를 보이고 있다. 즉 권위에 대한 맹목적, 무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며 그러한 권위에 대한 힘의 행사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성향은 학생들의 성별, 가정배경별, 종교별 차이가 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지적인 성숙 정도와 관련없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정치 이데올로기 색채를 가미하지 않은 독단적 척도를 통해 조사한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지적으로 성숙함에 따라 독단 정도는 크게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권위주의적 행태는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그 예로 운동권의 한 대학생은 「운동권은 철저한 상하 구별이 있어 수뇌부를 각하라고까지 부른다. 불만을 표시할 수도 없다. 전술상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하기 위해서라지만 민주쟁취를 내세우면서 또 다른 권위주의를 만들어 내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권위와 합법적 권위 중 어떤 권위가 더욱 실제적인 위력과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판단은 쉽지 않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권위를 실제 권위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어른들은 전통적인 권위에 집착하여 합법적 권위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또한 이같은 권위는 사회적 변화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위에 대한 갈등은 세대간의 사고방식을 양분하여 판단해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어른들은 전통적이며 도식적인 동시에 감정적이다. 반면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나의 선생님, 부모는 무조건 합리성과 정형화된 사회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한다. 우리 같은 아이들의 입장은 한번도 생각하여 주지 않는다.」

결국 아이들은 전통적 권위에 대항하는 합법적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개개의 수준에서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며, 전통과 권위라는 어휘 자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른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권위의 확대는 권위주의적 양심의 확산을 가져온다. 권위주의적 양심은 자율성이 아닌 타율에 의거한 사회질서나 개인의 일정한 행동형태의 유지이다(이상우, p. 48). 이것은 건강하지 않지만 관계를 갖는 인간에게 있어 불가피한 사고 또는 행동의 틀이 된다. 따라서 그것이 합법적인 권위이건 전통적인 권위이건 어른들에게 있어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며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무척 소중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권위는 늘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강압의 수단일 경우가 있다.

아이들은 어른이 전통적인 권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불가피한 인간생활의 현상이라 수긍하면서도 그 권위의 행사에는 어른의 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른들이 권위가 없어요, 억박지르려고만 하지요. 오래 살았고 힘센 것이 권위인가요.

권위를 인정해 주는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당신들의 도덕성, 근면성, 자주성으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경험이나 어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비굴하지요. 힘깨나 있는 사람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등 절제가 없고 힘없는 사람은 저희 같은 아이들에게까지 비굴한 모습을 보여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어른들이 참권위를 찾을 수 있는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결국 아이들은 어른들이 전통적 가치를 집착하고 고수하는 행동을 권위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들이 올바르게 권위를 찾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의식을 하고 있지만 간혹 그 권위가 합법성을 상실한 즉, 전통적 가치를 재해석 노력없이 단순히 전승되어진 권력으로 책임감없이 실행되고 있다는 반감이 강하다. 이것은 또한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당면 문제라는 현실아래에서 권위를 복합적인 인간 생활의 요소로 보고 있다.

3. 인식의 세대차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다.

「아버지가 갈비를 두 대 먹는 동안 나는 다섯 대나 먹을 때 세대차를 느낀다.」 세대차란 갈비 다섯 대와 두 대 먹는 차이인가?

어쩌면 옳은 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갈비를 먹는 습관—좋은 음식도 늘 먹어본 사람만이 잘 먹는다—에 익숙하지 못하고 아들은 갈비를 먹는데 익숙한 음식 문화에서 자라나 훨씬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문화적 환경과 이로 인해 생기는 인식의 차이이다. 우리의 경우 아버지 세대는 갈비보다 채소를 먹는데 익숙한 생활일 수 밖

에 없었고 오늘날 아이들은 그 반대로 갈비먹을 기회가 더 많다. 갈비는 분명 맛있고 영양이 있는 음식이지만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예전에는 쉽게 먹을 수 없었다.

서로 의식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세대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시간성 때문에 세대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차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서로 다른 기대욕구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원전 이집트 상형문자의 「요즈음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서」라는 해석을 거론치 않더라도 어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의 진보적인 사고나 행동에 대해 늘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반해 아이들은 어른들의 경험적 생활태도나 사고방식에 대해 반기를 들며 어른들의 세계는 고루하고 진부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질책한다.

사회적 준거체제가 다른 이 두 세대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인 동시에 당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의 사회질서를 이끌고 있는 어른들과 무한한 창의성과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은 서로의 관심 세계가 틀리고 인식의 차이가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삶의 과정은 어쩌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깨끗한 갓난 어린이로부터 삶의 갖가지 모습을 그리며 그 가능성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인지 모른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어른들은 자연히 현실을 바탕으로 삶의 목표와 과정을 이행해 나갈 수 밖에 없는 반면 아이들은 현실을 자기의 이상과 목표를 수정하는 열려있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차가 그 긍정적인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면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는 세대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의에서는 세대차를 넘어 세대간의 단절로 이르게 된 원인을 사회적 현상 안에서 살펴보는 한편, 이러한 세대간의 차이에 대한 어른과 아이들간의 이해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세대간의 인식수준과 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어른들의 경험과 아이들의 합리

「할머니상을 당하고 빈소에서 어머니가 호곡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곡을 하려했으나 눈물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또 어른들이 문상객을 맞을 때 눈물은 흘리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아이고’하고 소리로만 곡을 하는 것이 우스워 웃음을 참느라고 혼이났다. 그뒤 49제 때도 절하는 법을 몰라 꾸중을 들었다. 기본적인 의례는 배울 생각이지만 그러나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인 예절은 의미가 없다.」

위의 예에서 우리는 사회적 관습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도 알 수 있지만 또한 세대차이라는 의미에서 요즈음 아이들 생각의 한 면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달리 형식에 치우치는 것을 거부하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면을 보인다. 그들은 변화가 필요하면 항상 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변화에 대해 저항적인 어른들과는 항상 갈등 상태에 놓인다.

이러한 갈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성세대 즉 어른과 신세대인 아이들과의 경험상의 차이에 따른 인식차와 지금 현재의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상의 차이 등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를 성장배경으로 가진 어른들은 이미 도시화되고 대중화된 환경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아이들 세대와는 생활감각 차이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경험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가치관 형성기의 생활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엇갈린 평가 속에 대화단절에까지 이르게 된다.

「요즈음 아이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라고 독방을 마련해주었더니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공부하기 일쑤고 조용하다 싶으면 헤드폰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돌려가며 공부한다고 앉아 있는데 그러고도 공부가 되는 건지…」 반면 아이들은 「어른들은 참 이상해요 조용한 가운데서만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말이에요」라며 오히려 어른들의 몰이해로 몰아붙인다.

이외에도 어른들은 아이들이 외국가수나 국내가수에게 열광하고 랍바다 춤을 즐기며 유니섹스적인 옷차림에 유행어, 은어, 약어를 즐겨 쓰는 언어생활을 하는 것도 못마땅해 한다. 어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서 나온 상식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틀에 맞추길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단막을 만들게 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들만의 문화인 것이다.

60~70년대의 산업화를 주도해 온 어른들은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보편주의적인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관념적으로는 같은 사상을 갖고 있지만 전통주의와 권위주의가 짙은 사회적 환경에서 실제 생활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다분히 보수적이며 권위적이다.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속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했었고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열망하

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자 근면과 성실을 제일신조로 삼고 개인적인 성공과 신분상승을 꾀하면서 엘리트지향적이고 출세주의적인 인생관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반해 아이들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개인적인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큰 꿈없는 소시민으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학회(1990)에서 조사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덜 놀더라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는 62%인데 반해 젊은 세대는 24%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좀 적게 벌더라도 여가를 즐기고 여유있는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 기성세대는 36%인데 반해 젊은 세대는 69%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위해 일하고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는 어른들에 비해 아이들 세대는 이런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이런 경향은 남의 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으며 운동도 집단운동보다는 혼자서 또는 두 명이 하는 운동을 선호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양보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 모든 것이 내면화돼 있는 어른들에 비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양보하는 상황도 합리적일 때 가능하다. 어른들이 다소 비합리적이나 포용적인데 반해 아이들은 합리적일지는 모르지만 단편적이고 순간적이다. 또한 질적으로 변화되어진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아이들은 인간관계의 서열성보다는 평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더 강조하고 개인이 집단에

우선한 개인주의가 내면화되어 있으며 평범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주부 김 모씨는 제사때만 되면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큰집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면 아들은 종교를 이유로 절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서 묵념만 해 집안 어른들로부터 꾸중을 듣기 일쑤이다.

식당을 경영하는 최 모씨도 자식이 야속할 때가 많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 아들하나만 믿고 뒷바라지 해온 최씨는 얼마전 결혼한 아들이 자꾸만 「나가 살겠다」고 우겨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최씨는 아들을 불러 달래곤 했으나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도 너무 자식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자기의 삶을 찾으라」고 충고했다.

D자동차 회사 과장 이 모씨는 최근 입사한 젊은 직원들이 너무 이기적인데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퇴근 후 회사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곧바로 귀가하기 바쁘고 회사의 특별한 행사나 전체적 모임이 있을 때는 갖은 핑계를 다해 빠지거나 어쩔 수 없이 참석하더라도 1차만으로 끝내고 어느 새 사라져 버리는게 보통이다. 또 조금만 더 하면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일도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덮어버리고 어찌다 갑작스럽게 야근이 걸리면 대놓고 불평불만을 터뜨린다(한국일보사회부, 1990).

이처럼 서로 다른 생활 경험의 차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인식을 요구할 수 없게 한다. 이런 생활경험의 차이에 기인한 두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는 어른들의 사회화에 대한 기능을 감소시킴과 아울러 아이들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준거집단으로서의 청소년 문화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아이

들이 나름대로의 독특한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을 갖게 만든다.

세대단절

칼 만하임은 세대를 사회학적 의미에서 해석하여 세대의 상황, 관련, 통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Karl Mannheim, pp. 276~320

그가 말한 세대의 상황은 세대가 태어나는 사회적 기반을 말하며, 세대의 단절은 세대상황아래서의 인간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관심있는 문제에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생하며, 세대의 통합은 세대가 집단생활 속에서 상호작용하여 힘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세대차이는 원론적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역동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세대간의 경험과 문제에 대한 태도상의 차이는 세대의 상황이나 관련을 가지는데 불가피한 현상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세대차이는 그것이 가지는 괴리현상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원초적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세대차이가 세대간의 생활속에서 상호작용도 못하는 단절상태에 놓이게 될 때에 일어난다.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신다. 그 마음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참 딱하시다. 나는 나고 어머니는 어머니이다. 어제 어머니와 딸다툼을 하다 그만두었다. 도저히 대화가 안된다. 서로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

「버스 안에서 앉아 있던 어떤 아저씨가 나의 가방을 받아 주었다. 사람이 많아 엉겁결에 그냥 맡기고 내릴 때가 되어서 가방을 집어 승강

구로 가는 순간 아저씨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학생은 고맙다는 말도 안해? 나는 기가 막혀서 대꾸도 않고 내렸다. 나는 고마운 줄 안다. 그렇다고 꼭 표현해야 하나 어른들은 이상하다. 늘 이런 식이다. 생색을 내려고 한다. 물론 그 아저씨의 섭섭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들은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하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을 모른다. 사실 그냥 야단 한번 맞으면 될 일이다.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세대격차 또는 세대단절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원인-결과의 단선적 논리로 단정짓기는 힘들다. 그 원인은 역사성과 사회구조의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 어쩌면 여기에 세대간의 연계와 전승통로의 문제도 부가될 수 있다.

예전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의식과 그에 대해 역동적 반항의 힘을 키워왔다. 따라서 그 세대는 이전 세대의 경험적 모습과 행위 그리고 사고를 바탕으로 한 변증법적 체계의 발전을 해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신수단의 발달은 새로운 상황의 지평을 열어 놓았다. 이전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항을 정보의 개방을 표명하는 각종 수단을 통해 모두 열어 놓았다. 이로인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로부터 경험을 전수받기보다는 이미 사회적으로 제시된 현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형성, 발전시켜 나간다. 특히 우리와 같이 경험적 문화유산이 지배했던 과거와 서구 문화의 화려한 유입을 통해 변화한 현재와의 갈등은 세대간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세대의 단절을 가져올 소지가 매우 많다. 좀더 구

체적으로 말하면 기성세대를 축으로 한 젊은 세대의 변혁과 개혁에 따른 세대차의 문제가 아닌 젊은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와 사고를 탄생시킴으로써 서로의 단절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올라오셨다. 정정해 보이셔서 그냥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나를 나무랬다. 나는 그냥 일어서서 다른데 가서 서 있었다. 별로 생각이 없었다. 귀찮았다. 어른들은 자신의 세계가 소중할 것이다. 그 세계는 우리와는 다르고 또한 나는 별 관심이 없다.」

결국 세대의 단절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세대간의 무관심은 한 세대가 가질 수 있는 범주를 좁혀 놓았고 나아가 개인주의적 사고를 지향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앞서 말한 세대간의 단절에 대한 징후가 예사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심한 것은 아니다. 단지 세대의 단절이라는 어휘와 개념이 젊은 세대 즉 아이들의 인식에서 유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단절된 느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이전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다.

「어른들은 심각한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어제 방송매체에 나와 어떤 정책에 대해 약속을 한 지도자가 오늘은 신문을 통해 사정상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어른들은 남들을 위한 삶이 보람되고 가치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이 남들을 짓누르고 성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수단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한다. 결과가 좋으면 나쁜 수단이라도 면책되어 질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

나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려고 애쓰지만 적지 않은 아이들은 인생을 젊음을 즐긴다. 그들은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며, 어른들처럼 직업이나 위치에 대한 비굴한 존경을 하지 않는다. 그들 나름대로 나는 나 스스로 열심히 살면 그만이다.」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젊은 세대는 매우 현실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한편 기성세대에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와는 달리 산업화되고 정보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어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함께 의학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신체적, 생리적으로는 빨리 성숙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지금 현재의 자신의 위치에서 삶을 가치있게 하려는 노력을 한다.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병존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는 한편, 새로운 상황에 늘 적응하는 심리적 긴장을 경험한다.

주부교실중앙회가 성년기를 앞둔 중고교생 자녀와 어머니들이 부딪치는 교육생활의 전반적 문제를 토론허기 위해 마련한 대화모임에서 어머니들은 공부로 인해 대화시간의 절대 부족을 내세웠으나 자녀들은 단 5분이라도 성의있는 대화를 갈망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큰 괴리를 보였다. 한 어머니는 딸 아이가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밤 9시에 집에 온다면서 「공부 이외에 다른 문제에는 전혀 신경쓰지 못한다. 대화도 피곤해 할까봐 피한다. 일요일에는 편히 쉬도

룩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다」고 어머니의 고충을 털어냈다. 또 한 어머니도 아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공부해야 한다고 타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춘기 자녀들의 대답은 의외였다. 이같은 어머니의 정성은 과잉보호, 간섭, 극성스런 엄마로 느끼게 할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만 데에 있다」는 것이 자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한 고등학생은 「우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5분이라도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일은 부모가 출전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우리 아들은 문제될 게 없다」고 자신있게 단언한 엄마에게 아들은 「문제 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데 자제하고 있어요」라고 반박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1986, 5. 20).

이전보다 현실사회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갖기 원하고 있지만 그리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진정한 대화를 원하지만 어른들의 이해부족으로 그 통로를 잃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들은 때로는 자기폐쇄적이거나 대화단절 현상을 나타낸다.

여기서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사이 중 어떤 세대가 더 옳은 가치를 가졌는지에 대한 시비 이전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가치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한 세대의 가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선택한 것으로 합의되어야 한다면 다가오는 세대의 생각은 그들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성세대는 세대의 단절을 깊이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비합리적인 현상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농경사회의 전통 속에서 성장한 어른들과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성장한 아이들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치관 형성기의 시대적 경험의 현격한 차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세대간의 갈등을 일으킨다. 또한 이 갈등은 사회발전의 힘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사회 구조적 역동 속에서 세대의 단절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어른들은 전통사회에서의 수직적 인간관계 속에서 복종, 극기, 인내, 근검절약 등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지배와 복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체면 등을 존중하는 형식주의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어른들의 모습이 탈권위주의를 표방하는 아이들의 눈에는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것으로 비취질 뿐이다. 이런 어른들과는 달리 실질적이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종종 어른들로부터 버릇없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시하는 연고주의와 인정주의에 입각한 어른들의 사고방식도 아이들의 눈에는 비합리적으로 비취지고 있다.

연령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경험과 의식의 차이로 세대차이를 보았던 어른과 아이들의 눈은 산업화, 도시화의 사회속에서 서로의 문화적 사회적 공간을 확보하고 그를 토대로 다른 세대와 연관지으려는 세대다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과는 다른, 스스로 형성한 문화수준에서 어른들을 바라보는 세대간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III. 아이들의 현실인식과 그들의 눈에 비친 어른의 모습

1.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관해서

- 어른들이 보이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대해 3명 중 2명의 아이들은 이를 불신하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
- 어른의 행동을 신뢰하려는 태도는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
- 어른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거부하면서도 자기 부모의 경우에는 그 태도를 바꾼다.
- 아이들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의 경우에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되면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태도에서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로 바꾸는 경향을 보인다.

2. 어른의 전통적 가치의 집착과 고수에 관해서

- 어른의 권위(전통적 가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대략 20~30% 수준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 16.4%의 아이들은 성적을 높이기 위해 친구 타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0.3%의 아이들은 「이기주의」가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 30.5%의 아이들은 성적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 35.2%의 아이들은 「눈치」와 「찍기기술」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여긴다.
- 18.1%의 아이들은 「상부상조」의 정신은 시대착오로 생각한다.
- 66.7%의 아이들은 경쟁정신이 성공의 필수

하고 생각한다.

- 24.4%의 아이들은 남의 성공이 나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66.7%의 아이들은 명문대 입학은 그들의 최종목표로 인식한다.

3. 어른과 아이들의 인식의 차이

- 64.6%의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
: 그러나 부모의 74.0%는 부모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94.6%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부모의 86.4%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91.6%의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들의 일기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57.6%의 부모들은 자녀의 일기보는 것을 찬성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다.
- 71.4%의 아이들은 과외공부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 그러나 50.0%의 부모들은 이를 인정한다.
- 74.2%의 아이들이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고 한다.
: 그러나 66.7%의 부모들은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 57.3%의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
: 그러나 62.0%의 부모들은 자녀의 자유를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85.1%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자위행위가 비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68.4%의 어른들은 자위행위를 비

정상적으로 생각한다.

○70.0%의 아이들이 남녀 이성교제는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60.0%의 부모들은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한다.

○76.0%의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들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51.3%의 부모들은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68.0%의 아이들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반대한다.

:어른들이 음주와 흡연을 반대하는 비율은 88.5%이다.

○66.2%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의 디스코장 출입을 반대한다.

:그러나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는 85%이다.

IV. 아이들의 마음속에 비친 어른의 이미지

1. 아버지의 이미지

강한 이미지

○아버지의 강한 긍정적 이미지는 부지런하고, 예의바르고, 책임감 있으며, 정직하고 믿을 수 있으나 고생하는 모습의 이미지이다.

그 구체적인 정도(느끼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아버지의 근면한 모습의 이미지는 77.5%이다.

:도시 아이들보다 지방의 아이들이 그리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아버지를 근면하게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아버지의 예의 바른 모습의 이미지는 75.7%이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를 예의바르게 느낀다.

○아버지의 책임감 있는 이미지는 71.8%이다.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를 책임감 있게 느낀다.

○아버지의 고생하는 모습의 이미지는 71.5%이다.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서울아이들이 지방아이들보다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생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아버지의 정직한 모습의 이미지는 70.7%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정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아버지의 믿을 수 있는 모습의 이미지는 70.2%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버지에 대해 믿을 수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보통의 이미지

○아버지의 친절한 모습의 이미지는 64.6%이다.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아버지에 대해 친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아버지의 신중한 모습의 이미지는 62.8%이다.

: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중
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솔직한 모습의 이미지는 60.9%이
다.

: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솔직하다
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약한 이미지

○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의 이미지는 55.3%이
다.

: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행복하다
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의 이미지는 55.8%이다.

: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다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실리적인 모습의 이미지는 53.2%
이다.

: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실리
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이해성 많은 모습의 이미지는
50.4%이다.

부정적 이미지

○ 지성적이지 못한 모습의 이미지는 65.1%이다.

: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지방의 아이들이 서울의 아이들보다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성
적이지 않게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 아버지의 자신감 없는 모습의 이미지는
59.4%이다.

: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신
감 없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관대하지 못한 이미지는 57.6%이
었다.

: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들보다
지방아이들이 서울아이들보다
부모의 연령이 적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관대
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멋지지 못한 이미지는 55.9%이다.

: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멋지지 않
게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정의롭지 못한 이미지는 52.4%이
었다.

: 남자고등학생들이 아버지를 정의롭지않게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아버지의 엄격한 모습의 이미지는 51.6%이
었다.

2. 어머니의 이미지

어머니에 대한 강한 긍정적 이미지로 「근면

하다», 「예의있다», 「친절하다», 「고생을 많이 한다», 「믿을 수 있다», 「정직한」 모습이며 보통의 이미지로는 「신중하다», 「솔직하다», 「이해성 많은」 모습이며 약한 이미지로는 「행복하다», 「침착하다», 「현실적이다」이며 부정적인 이미지는 「자신감 없는», 「지성적이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모습의 어머니였다.

강한 이미지

○어머니의 부지런한 모습의 이미지는 80.1%이었다.

: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지방아이들이 서울아이들 보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지런하게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의 예의바른 모습의 이미지는 77.4%이었다.

○어머니의 친절한 모습의 이미지는 76.8%이었다.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의 이미지는 75.4%이었다.

: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지방아이들이 서울아이들보다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생하는 모습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의 믿을 수 있는 모습의 이미지는 73.4%이었다.

○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의 이미지는 72.9%이었다.

○어머니의 정직한 모습의 이미지는 70.5%이었다.

: 서울 아이들이 지방아이들보다 정직한 모습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보통의 이미지

○어머니의 신중한 모습의 이미지는 65.5%이었다.

○어머니의 솔직한 모습의 이미지는 60.9%이었다.

○어머니의 이해성있는 모습의 이미지는 61.5%이었다.

약한 이미지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의 이미지는 56.9%이었다.

: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의 침착한 모습의 이미지는 54.6%이었다.

○어머니의 실리적 모습의 이미지는 53.2%이었다.

: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 현실적 모습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부정적 이미지

○어머니의 자신감 없는 모습의 이미지는 66.9%이었다.

: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의 지성적이지 못한 모습의 이미지는 61.9%이었다.

: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지방아이들이 서울아이들보다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성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의 정의롭지 못한 이미지는 60.3%이었다.

: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비율이 높았다.

V. 결 언

지금까지 요약된 결과가 보여주듯이, 아이들이 어른을 보는 눈은 어른들이 짐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눈은 아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 주저없이 거부하고 비난한다. 물론 자기의 경우에는 좀 더 관대하게 보여주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잠재되는 어른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기성세대가 전통적인 가치에 집착하며 고수하려는 데 대해 거부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예문에서 제시한 고등학교 아이들이 지어낸 「고교교육현장」은 기성세대들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 준 「국민교육현장」의 전통적 가치를 거부하는 모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보면 기성세대의 전통과 권위를 거부하려는 정도는 대략 20~30%수준이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보이는 이러한 정도는 그들이 보다 성인들과 접촉을 많이 할수록 커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예컨대,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성세대를 불신하는 정도가 중고생들 보다 훨

씬 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사결과로써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어른과 아이들간의 보다 구체적인 문제상황에서는 그 견해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를 인정할지라도 어른들이 아이들의 삶의 민감한 부분까지 간섭할 때는 아이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배척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부모는 자녀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을지라도 자녀의 삶을 부모의 편견이나 소망만으로 결정지을 권리는 없을 것이다.

다행스런 결과로 보여지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반영된 부모의 심미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었다. 아직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비록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지라도('91년도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 아이들은 아직 전전한 안경으로 어른들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른들의 생각에 앞서 아이들의 생각과 입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어른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아이들이 겪는 경험이나 딜레마 그리고 그들의 관심에 애착을 가지고 깊숙히 참여하여야 한다.

어른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이들의 이해는 받을 수 없다. 어른의 아이에 대한 올바른 권리는 아이들이 존경하며 답기를 바라는 살아있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인 어른들을 덕목의 사표로서 존중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태길(1986). 소설속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I. 서울:문음사.
- 대한YMCA연맹(1990). YMCA 조사연구90-3 부모와 자녀의 대화. 서울:대한 YMCA 연맹 출판부.
- 한승희외(1990). 어른들은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한국청소년 연구원
- 김성이외(1989).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서울:체육부.
- 김형모(1989). 자녀문제 부모고민. 서울:십대들의 쪽지.
- 대한YMCA연맹(1979). 한국의 젊은이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대한 YMCA 연맹 출판부.
- 대한YMCA 연합회(1987). 청소년의 생활 및 여가실태조사. 서울:대한 YMCA 연합회 출판부.
- 박아청(1988). 청년과 아이덴티티. 서울:배영사.
- 정원식외(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조선일보사회부(1987). 우리집 가정교육. 서울:도서출판 우석.
- 청소년교육선교회(1989). 청소년 기사자료집 I-IV. 서울:청소년 교육 선교회.
- 청소년 육성위원회(1989, 1990). 청소년 백서. 푸른나무이야기모임(1986, 1989). 푸른나무 I, II, III. 서울:도서출판 푸른나무.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5).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 이규태(1991). 한국인의 의식구조 1-4. 서울:신원문화사.
- 한국일보사회부(1990). 신세대—그들은 누구인가 上, 下. 서울:한국일보사 출판국.
- 한국교육개발원편(1989). 한국인의 남녀 역할관. 서울:(주)민문고.
- 윤태림(1986). 한국인의 성격. 서울:동방도서.
- 「이땅」편집동인(1991). 이땅의 아이들과 함께. 서울:도서출판 친구.
- 정원식(1984). 아버지 방법 어머니 기술. 서울:집현전.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5).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서울:한국갤럽조사연구소.
- 고려대 행동과학연구소(1985). 한국인의 주체성.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 한국사회학회(1990).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도서출판 나남.
- 이동식(1989).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서울:일지사.
- 임희섭(1988).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정음사.
- 한국금연운동연합회(1990). 우리의 자녀들을 담배연기 없이 기릅니다.
- 한국여성개발원(1986).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 이혜정(1989). 노는 애들의 세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M.블레어, R.S.존스 지음, 김인식 옮김(1988). 청년심리학. 서울:배영사.
- 토마스 고오든 지음, 이태영·황영자 옮김(1987). 아동·청소년 그들의 세계. 서울:홍익제.
- W. 휴 머실다인 지음, 이종범·이석규 옮김

- (1989). *몸에 뻔 어린 시절*. 서울 : 가톨릭 교리 신학원.
- Mike O'Donnell(1985). *Age and Generation*.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s.
- Deutscher, I. (1970). Words and Deeds: Social Science and Social Policy. In W. J. Filstead(Ed.), *Qualitative Methodology*, Chicago: Markham.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Freud, A. (1936).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c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Strike, K. (1972).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The Impact of Science on our Concept of Man. In L. G. Thomas(Ed.), *Philosophical Redirection of Educational Research*. The Seventy-First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1989). 青少年 問題 現狀 對策. 東京.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1989). 目 見 世界青少年意識調查. 東京.